

한국 조경의 문화적 전통 시론

황 기 원*

目 次

I. 조경의 역사와 과업

1. 조경의 역사

2. 조경의 과업

II. 한국 조경의 문화적 전통

1. 여러 가지 조경 방식

2. 이런 조경을 가능하게 했던 바탕

3. 결론-조경의 문화적 전통

I. 조경의 역사와 과업

1. 조경의 역사

1) 조경, 새롭고도 오래 된 일

조경, 특히 한국 조경은 아주 새롭지만, 매우 오래되었다. 造景이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경관(景)을 만든다(造)'는 뜻이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쓰고 있었던 말이 아니라, 1970년 청와대에서 있었던 어느 회의에서 쓰기 시작했으며, 당시 이 말은 파괴된 국토 환경을 수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문 분야로서 서양의 landscape architecture를 도입하면서 새로 '만든 말'이라고 한다.¹⁾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조경의 역사는 30년 남짓하다.

그러면 landscape architecture은 사정이 어떠할까? 사실 이 말도 생긴 지 140년 밖에 안 되는, 새로운 말이니, 서양 조경의 역사도 이 정도로 짧다. 이 말은 미국 뉴욕에서 센트럴 파크를 만들 당시에 현대 조경의 창시자로 불리는 프레드릭 로우 올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와 함께 공원 계획과 설계를 맡았던 칼베르 보(Calvert Vaux)라는 건축가가 만들어 내었다고 하니 역시 '만든 말'이다.²⁾ 이 말의 뜻을 잘 살펴보면 건물을 잘 짓는 전문가를 building architect라고 하고, 배를 잘 짓는 전문가를 naval architect라고 하듯, 경관을 잘 꾸미고 가꾸는 전문가라는 뜻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1) 청와대 조경 담당 비서관(1972-79)으로 특별 초빙되었던 오휘영 박사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이 1970년 잠시 귀국했을 때 청와대에서 행한 브리핑에서 처음 사용하였는데, 서울공대 건축공학과 윤정섭 교수의 자문을 받아 만든 말이라고 한다. 오휘영, "우리나라 근대조경 태동기의 숨은 이야기(1)," 『환경과 조경』 141호, pp. 48-51.

2) 그 날이 1863년 5월 12일로서, 미국에서는 이 날을 자기네들의 조경 창시일로 꼽는다.

을 알 수 있다.³⁾

그러면 우리나라 조경의 역사는 정녕 이렇게 짧을까?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 생겨나기 전에도 조경이 하는 일을 누군가 해 왔고, 그 성과는 우리 금수강산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옛날에는 조경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 즉 營造(조선시대 이전), 造園(일제 강점기-1970년대 초) 등과 같은 말들로써 그런 일을 표현했을 따름이다. 이 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이다. 즉 인류의 조경의 역사는 대단히 오래 되었다.

그러면 조경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우선 조경이 자연을 가꾸는 일, 사람의 삶과 삶터 가까이 자연을 끌어 오는 일이라면(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아마도 인류가 이 곳 저 곳을 떠돌아다니는 유랑생활을 견어치우고 한 곳에 머물며 살아가는 정착생활을 시작할 때 건축(살림집이 필요하니까)과 토목(물길 다스리고 길을 닦아야 하니까)과 원예(먹을 식물이나 약으로 쓸 식물을 육종하고 재배해야 하니까)와 더불어 거의 동시에 시작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2) 조경의 원형과 발달

그러면 가장 먼저 만든 조경은 무엇이이었을까? 원시 인류의 무덤에서 시신 위에 꽃을 꺾어 덮은 유적이 발굴된 적이 있다고 하니, 묘지 꾸미기가 가장 먼저 있었던 조경이었을까? 청원군 소호리에서 발견된 법사에서 보듯 논을 만들고 벼를 재배하던 농사가 가장 먼저 있었던 조경이었을까?(조경은 원예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아니면, 들과 산에서 캐다가 집 근처에 옮겨 심어 가꾸던 꽃밭, 채소밭, 약초밭이 가장 먼저 있었던 조경이었을까?(이 또한 원예의 시작이다). 아득한 옛날에는 이 모든 것이 뭉뚱그려진 살림살이이었을 것이니, 따로 조경의 원형이라고 내세우기가 쉽지 않지만, 동서를 막론하고 대체로 '정원'을 조경의 원형이라고 꼽는다.

오늘날 우리들은 정원이라고 하면 보기 좋은 경치를 집안에 꾸며 놓고 즐기는 열락정원(悅樂庭園, pleasure garden)을 머리에 떠올린다. 그러나 맨 처음에 생겨난 정원은 집안 살림을 펼쳐 놓은 마당이기도 하고, 부족한 먹거리를 보충하고 약초를 키우기 위한 실용정원(實用庭園, utility garden)이기도 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농가의 마당과 채마밭이 바로 실용정원의 원형이고, 또 집 근처의 시원한 숲, 경치 좋은 언덕, 맑은 개울 등이 열락정원의 원형이다.

정원의 본질은 다음과 같으며, 이것은 조경의 본질이기도 하다.

(1) 반드시 울타리가 있다. 이것은 실용적으로 볼 때 외부의 도둑이나 야수로부터 살림살이와 먹거리를 보호한다는 뜻이지만, 상징적으로 볼 때에는 자연의 일정한 구역을 테두리 치고 그 안을 길들임으로써 안과 밖의 세계를 구분 짓는다는 뜻이다. 즉 정원의 내부는 가치가 높아

3) 이 말을 중국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경관건축'이라고 번역하여 쓴다.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부터 쓰던 造園이라는 말과 더불어, 최근에는 영어의 음을 그대로 딴 외래어 ルンドスケープアーキテクチャ-를 쓴다.

진 문화(인공)이고, 정원의 외부는 가치가 숨어있는 자연(야생)이다. 園이라는 한자를 보면, 큰 울타리 □ 안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 𡩺이 있는 형상을 본뜬 글자라고 한다. 즉 야생의 과일나무를 옮겨다가 육종하면서 크고도 달고 맛 있는 과일을 손쉽게 수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럽어 garden(영), Garten(독), jardin(불, 스), giardino(이)의 어원도 ‘울타리 속의 기쁨’이라는 말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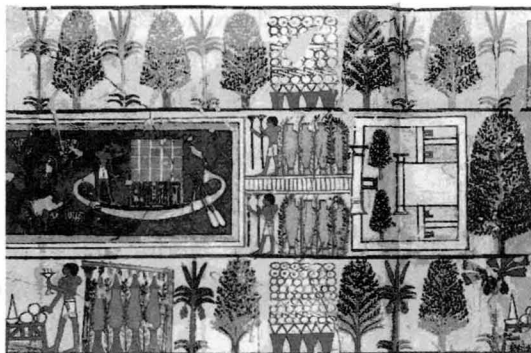
(2) 정원은 실용과 열락(기쁨)이 겹쳐져 있는 곳이다. 실용이라고 생각하면 생물이 자라는데 필수적인 환경과 관계가 되고, 열락이라고 생각하면 감각적 쾌감과 관련이 있는 경관과 관계가 있다.

(3) 정원은 여성의 세계이다. 그 위치가 집 둘레의 공간이고, 그 내용이 살림과 직결되며, 그 형식이 섬세하기 때문이다.

정원이 실용성보다 열락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은 유한계급/지배계급의 출현에서 비롯한다. 궁궐·저택·사원에 붙여 짓는 정원이 바로 그러하다. 맨 흙의 마당에 잔디나 돌이 깔리고, 채소와 약초 대신에 기화요초가 심어지고, 과수 대신에 관상수가 심어지고, 가축 대신에 애완동물이 길러지고, 농사용 저수지 대신에 池塘이 만들어지고, 원두막 대신에 정자가 지어지고, 거름냄새 대신에 꽃향기가 가득 차게 된 것이 역사상에 볼 수 있는 수많은 정원과 궁원들이다. 이런 열락정원을 꾸미고 가꾸는 일을 맡아 온 것이 옛날의 造景家(造園家)이다. 이들은 음악가나 미술가처럼 어용 전문가들이고, 주로 남성들이다.

3) 현대 조경의 등장

현대조경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인류 역사상 근대화가 시작되는 19세기 중반이다. 공원을 개방하거나 새로 꾸미게 된 공공정원인 公園(public park)이 근대도시의 중요한 도시시설로서 등장하게 된다. 뉴욕의 센터럴 파크가 그 효시이며, 그 설계자인 Frederick Law Olmsted가 근대조경



실용과 열락이 겹치는 고대 이집트의 정원



창덕궁 후원-한국의 열락정원

의 창시자로 불린다. landscape architecture(조경)라는 말도 이때에 만들어지며, 그 후 전문화의 길을 밟는다.

현대조경의 특징은

- (1) 이념적으로는 유한계급/지배계급보다는 시민 전체를 섬기는 民主化;
- (2) 내용적으로는 시각적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치를 만드는 일 못지않게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인 환경을 가꾸려는 環境化;
- (3) 대상으로는 정원 뿐 아니라 지구 전체의 환경을 다루고자 하는 廣域化 및 多邊化를 들 수 있다.
- (4) 그러나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이 일어난 19세기 후반에 태동하여 20세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동안, 조경에도 지나친 工學化, 技術化가 일어났다.

이처럼 조경이나 landscape architecture가 ‘만든 말’이라는 점은 이 분야가 하나의 전문 분야로서 ‘새로 생겨났음’을 암시하고 있다. 즉 사회적으로 어떤 새로운 수요가 생겨났고, 그것을 이전의 다른 인력이나 기술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기에 따로 파생, 발전하는 모든 전문업의 발생과정과 마찬가지로 조경도 전문분야로서 출발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조경은 전문업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 역사가 대단히 짧지만(미국은 130년, 한국은 30년 정도), 자연을 가꾸고 좋은 경관과 환경을 꾸미는 문화라는 점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그 역사가 길다.

2. 造景이 하는 일

1) 일반의 그릇된 인식

이처럼 짧고도 긴 역사를 가진 조경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다음과 같은 6가지 오해로 집약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형성되는 데에는 물론 조경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뒤떨어진 우리네 문화 수준의 탓도 있다.

• 오해 1: 조경은 치장이고 수식이다. [그래서 별로 탐탁치 않다]

조경에 대한 첫째 오해는 조경이 단순한 치장이고 수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조경을 꽃과 나무를 심어 보기 싫은 것을 예쁘게 꾸미는 일로 생각한다.

• 오해 2: 조경은 땀질이고 눈가림이다.

조경은 험벗은 산야를 임시변통으로 땀질하고, 보기 싫은 경치(공장, 고속도로, 쓰레기처리장 등)를 가리는 일이다. 그러나 필요한 일이라는 하지만, 그다지 높은 평가를 할 만한 일은 아니다.

• 오해 3: 조경은 인공이다. 그래서 나쁘다(성형에 비유).

그러므로 조경은 자연 그대로 두지 않고 인공으로 억지로 고치거나 꾸미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자신을 만물의 영장인 인류에 속한다고 자부하면서도, 그 인류의 힘보다는 자연의

힘을 더 높이 치는 이율배반적 생각을 한다.

• 오해 4: 조경은 선택이다. 즉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다 (화장에 비유).

조경이 치장이고 수식이니, 본 자연 바탕의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살리기 위해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점잖은 사람, 문화와 교양이 높은 사람은 조경을 안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

• 오해 5: 조경은 옛날 것은 좋은데, 현대 것은 나쁘다.

그러다가 보니, 우리 주변의 현대 조경은 나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전통시대의 조경(옛조경)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한다.

• 오해 6: [웬만한] 조경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게다가 웬만한 조경은 굳이 조경전문가에게 맡기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웬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릴 적에 식목일날 나무 심어 본 경험, 학교 화단이나 집의 화단, 화분을 가꾸어 본 경험이 있는 보통 사람들은 대개 이런 생각을 한다. 건축, 토목, 원예, 산림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2) 조경이 하는 3가지 일“보기 좋은 떡, 먹기도 좋고 몸에도 좋다”

조경은 말 그대로 보면 ‘景(觀)을 만들(造)’이다. 매우 간결한 정의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경관이라는 것 자체도, 또 그것을 만든다는 일도 그리 단순하지 않으므로 사실은 매우 복잡한 정의이다. 경관은 보통 생각하듯 눈으로 보아 매우 아름다워서 즐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경치’이지만, 생물이 자리 잡고 살아가는 ‘토지’이기도 하고, 이것을 확장한 ‘환경’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관은 사람의 시야에 잡히는 크기 이상의 것이므로 그것을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조경이 진정으로 본래부터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인가를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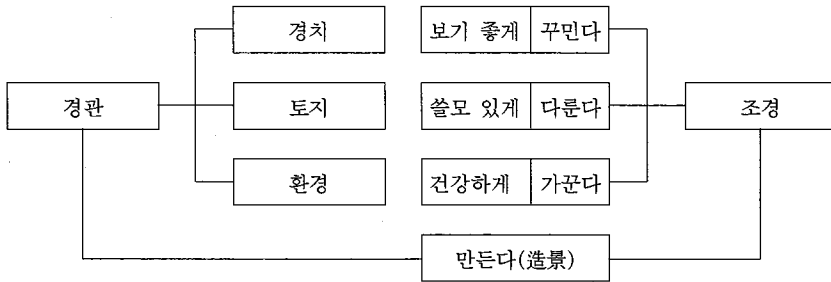
대체로 조경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고 꾸미는 일이라고 여기고, 정원·공원·광장·가로 등을 연상한다. 그러나 이 일 말고도 조경은 집밖에서 사람이 활동하는 여러 가지 ‘공간’을 만들고 꾸미는 일을 주로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우리 인간과 모든 생물들이 어울려서 잘 살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일이다. 이런 일들은 매우 탄탄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잘 다룬다고 해서 좋은 경관이 생겨나고 유지되지는 않는다.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ESSD (Environmentally Sound, 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은 미래의 인간환경을 다루는 주요한 길잡이로서, 조경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서 일하여야 한다.

• 조경 1: 景致를 아름답게 만들고 꾸민다: 눈에 보기 좋게

경관의 대표적이고 유명한 정의는 경관을 눈으로 보아 즐겁고 아름다운 ‘경치’로 여기는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이 땅 위의 어느 한 곳에 서서 자신의 둘레를 볼 때 눈에 들어오는 정보가

〈표 1〉 세 가지 조경



대단히 많은데, 그 중에서 좋은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은 고정된 장면이니 우리가 좋은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 보는 경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뿐 아니라 사람이 움직인다든지, 시간이 흐른다든지 하면 장면들이 연속되어 하나의 「시퀀스(sequence)」경관이 생겨난다.⁴⁾ 이것은 우리가 영화나 TV에서 보는 경관들이다. 현대에는 자동차 중심의 생활이 점차 중요하게 되고, 영상매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서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눈에 보기 좋게’ 한다는 것에만 치중하게 되면 실제로는 쓰기가 어렵다든지, 환경문제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또 ‘누구’ 눈에 보기 좋으나, ‘어디에서’ 보았을 때 보기 좋으나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요즈음 산동네를 재개발하면서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예이다.

• 조경 2: 土地를 현명하게 다룬다: 공간을 생활에 쓸모 있게

土地는 ‘경제적’으로는 못 생물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먹고 살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생산을 하게 하는 요소이자 자본이며 또한 재산이다.

그러나 토지는 ‘생태적’으로는 인간을 포함한 생물 전체가 함께 먹고 살아가는 기반이 되는 자연환경이자 서식처이기도 하다. 이렇듯 토지는 인간을 위시한 생물 전체의 생존에 필요불가결한 자원이다.

이 토지는 그 바탕인 지구의 규모가 워낙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생물의 각 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건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이 생존을 위하여 토지를 ‘이용’ 하려면 반드시 토지의 개발을 통해서 그 생김새를 바꾸어야 한다.⁵⁾

그런데 우리는 ‘개발’이라고 하면 매우 나쁜 뜻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원래 그 참뜻은 아직 숨어있는 사물의 쓰임새를 드러내어 그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다만 어떤 의도로써 어떻게

4) 중국 정원에서는 “걸음마다 경관이 달라짐(步移景異)”을 매우 중요시한다.

5) 아파트단지를 잘 만든다든지, 위락공원이나 박람회장을 꾸민다든지 하는 비교적 넓고 내용이 복잡한 공간을 잘 조성하는 일들이 이런 조경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토지개발을 하는 조경에 있어서는 경관을 정치가 아닌 토지라고 본다.

• 조경 3: 環境을 조심스럽게 가꾼다: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조경의 일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인간이 생활하는 환경의 생태적 기반(ecological base)을 만드는 일이다. 생물과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관계인 생태계(ecosystem)에서 먹이사슬을 통한 생물간의 관계, 여러 가지 순환을 통한 생물과 물리적 환경과의 관계의 질서가 인류를 위시한 모든 생물의 생존에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질서가 흔들리고 파괴될 때 나타나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생태(학적) 조경'이라는 접근방법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하는 조경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생태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사람들이 저지르는 자연환경의 변화를 보다 분별 있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산림·하천·지질구조·기후·동식물군처럼 자연환경의 큰 일개를 이루는 요소이면서 인공환경의 크기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변화를 더하고자 할 때에 인간을 포함한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자는 것이다. 낙동강 하구언 때문에 철새도래지가 사라진 것이라든지, 대기오염 때문에 남산의 소나무가 죽음을 대비하여 술방울을 많이 만든다든지, 지하수를 너무 뽑아 올려서 제주도의 샘물이 짜진다든지 하는 것은 이런 생태적 원리를 무시한 데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조경은 이런 환경적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3) 그러면 현실에서 조경이 그런 일을 하는가?

조경이 하는 일을 이처럼 3가지로 내세우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조경이 그렇게 크고 중요한 일을 하는지, 또 할 줄 아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런가 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은 비웃을 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잘 된 조경의 예를 들어보라고 다그칠 것이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 3가지 일은 조경이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내세운 것이고,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최근에 와서 조경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오히려 식자층에서 조경을 폄하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⁶⁾ 그런가 하면, 요즘 아파트는 건축보다도 조경이 잘 되어야만 인기가 좋다고 한다. 분양도 잘 되고, 재산 가치도 높게 형성, 유지된다고 한다. 이처럼 조경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극에서 극으로 오간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 원인은 바로 '조경'이라는 말 자체에 들어 있지 않을까? 즉 '만든다'는 말 그 자체에 현혹되거나,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근래 생태조경이 유행한다고 하여, 여기저기 그런 조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사

6) 청계천 복원 공사를 비난하는 일부 식자들은 청계천을 버려놓는 것이 조경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옛 조경 밖에 없다고도 하였다.

설 년센스일 수가 있는 것이다. 왜냐 하면, 생태계는 자연의 것인데, 생태 조경은 결국 그 자연을 인공으로 새로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4) '만드는' 조경의 문제

'造景'이라는 말이 잘 표현하듯, 조경은 '만드는' 일이다. 동서고금 조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역시 조경은 '만드는' 일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에덴 동산(Garden of Eden)은 조물주에 의해 창조된[만들어진] 최초의 정원으로서, 사상 최초의 조경이다. 이슬람교의 관점에서 파라다이스는 이상적인 세계로서, 그 내용은 대단히 아름답고 풍요로운 정원인데, 지상에 그런 곳을 만드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조경이었다.

'만드는' 조경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이 지구상의 어디엔 가에 실제로 존재하는 땅에 실제로 만든 그 무언가가 존재한다. 즉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의 세계에 속한다. 그러므로 만드는 조경은 실제로 땅을 배타적으로 차지한다. 바깥 세계와 경계를 만들고 내부를 잘 만든다. 이 경계는 담, 울, 해자 등으로 나타나지만, 소유권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처음에는 땅에 맞추어 조경을 하였으므로 '소극적으로 만드는 조경'이었지만, 점차 사람의 목적, 용도에 맞추어 현장을 크게 뜯어고치거나, 아예 새로 만드는 방식을 애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계획'과 '설계'를 하여야 하는데, 불필요한 것, 나쁜 것(자체가 나쁜 것, 나쁘게 보이거나 느껴지는 것)은 잘라내어 버린다. 그리고 필요한 것, 좋은 것(자체가 좋은 것, 좋게 보이거나 느껴지는 것, 필요하니까 좋은 것)은 밖에서라도 가져온다.

만드는 조경은 먼저 환경을 '만든다'. 桑田碧海[뽕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라는 말이 있듯, 지형을 뜯어 고치거나 새로 만들다시피 하고, 땅의 지질, 토양, 수문 등도 바꾼다. 이미 자라던 식물은 대부분 잘리고 뽑혀 나가고, 동물들은 모두 쫓겨난다. 그러므로 만드는 조경은 아무리 친환경적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환경을 변화하는 일이며, 자칫하면 반환경적, 즉 환경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기 쉽다. 그러므로 만드는 조경은 자연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이 뺏아온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자연뿐 아니라 사람의 삶과 삶터까지 망가뜨리는 사태를 빚기도 한다(신도시를 만들면 원주민은 강제 이주 당한다). 그래서 조경은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인공이고, 치장이고, 수식이고, 뻔질이고 눈가림이라는 비판을 한다.

5) '만드는' 조경의 대안

그러면 만드는 조경이 이런 문제가 있다면, 대안은 없는 것인가? 사람들은 여태까지 그 해답을 이른바 '친환경적 조경', 또는 '생태적 조경'에서 찾아왔다. 그러나 이 방식 또한 만드는 조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인공에 의존하므로, 본격적인 대안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溫故知新(옛것을 익혀 새로이 안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法古創新(옛것을 따라 새것을 창조한다)의 관점에서, 한국 조경의 문화적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만드는

조경 위주인 현대 조경의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한국 조경의 문화적 전통

1. 여러 가지 조경 방식

1) 옛 조경의 소묘

아마도 우리 옛 조경의 예를 들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창덕궁 비원이나 안압지를 떠올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담양 소쇄원이나 보길도 세연정 계원을 떠올릴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안동 병산서원이나 승주 송광사를 떠올릴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전국 방방곡곡의 정자와 누각을 떠올릴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낙안읍성 등을 떠올릴 것이다.

이곳들은 궁궐의 정원, 민간의 제택이나 별서, 서원이나 사찰과 어울리는 정원 또는 원림, 그리고 독립된 누정, 집합경관을 이루는 옛 마을 그 자체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⁷⁾ 물론 이것들이 순수한 조경인지, 아니면 건축이 우선하는 조영인지, 아니면 생활환경인지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조경의 일이 이루어낸 경관이고, 토지이고, 환경임에는 틀림없기에 옛 조경의 모습을 살펴보는 데에 큰 무리가 없다.

2) 取景-밖에서 안으로 가져오는 조경

그리고 이런 옛 조경을 잘 살펴보면 공통되는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즉 옛 조경의 대부분은 집밖에 있는 천연의 경관을 취하여 생활 속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동서고금에 공통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조경을 [밖에서 안으로] 가져온다는 뜻에서 ‘取景’이라고 이름 지어 보자.⁸⁾ 이때 가져오는 것은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돌 한 개 같이 아주 작아서 옮기기 쉬운 것으로부터 맑은 물, 시원한 바람, 아름다운 경치처럼 옮기기는 어렵지만 잘만 하면 이끌어 와서 즐길 수 있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동양 조경사에 자주 등장하는 말로서 기화요초(琪花瑤草)라는 말이 있다. 즉 ‘옥 같이 고운 풀에 구슬 같이 아름다운 꽃’이라는 뜻이다. 세상의 식물 중에 어느 하나 귀하지 않고 예쁘지 않는 것이 없겠지만, 사람들이 예로부터 좋아하던 식물은 따로 있어, 식물에 의미를 붙이고,

7) 庭園은 일본말이고 園林은 중국말이다. 庭은 주로 건물로 둘러싸인 뜰과 같은 공간에 배운 조경이고, 園은 울타리를 친 공간 안에 식물을 키우고 정자 따위를 지어 즐기는 조경이며, 林은 자연 환경에 약간의 손질을 가한 조경이라고 보면 그 차이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조경에서는 이런 엄격한 구분이 쉽지 않다. 또 제택(第宅)은 저택으로, 별서(別墅)는 별장으로 풀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8) 取景이라는 용어는 동양 조경 이론에서 일찍이 사용되던 말이었다. 계성은 ‘일반적으로 원림에 짓는 건축의 집터를 조성할 때에는 청당의 자리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우선해야 할 것은 좋은 경관을 취하는 일이다(凡園圃立基 定廳堂爲主 先乎取景)’이라고 하였다.

〈표 2〉 여러 가지 조경

유형	형식		예
造景 取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의 경관을 取하여 생활 속으로 끌어들임 	
	寫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밖의 천연경관을 베끼는 방식으로 집안에 경관을 만듦 	궁궐의 조경
	選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밖의 천연경관 중에서 형태가 좋거나 의미가 깊은 요소만 골라서 끌어들임 	여느 조경
	縮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경관의 생김새는 비슷하나 스케일을 줄임 	石假山 분재, 수석
	意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의 뜻(意)만 상징함 • 실제 경관의 의미를 추상화하거나 상징화하여 대신함 	상징조형물, 편액이나 주련 등의 글귀
	借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을 빌어 씌(借) • 집밖의 경관을 그대로 둔 채 집안에서 보고 즐김 	울 밖의 경치, 정자, 그림틀 창(畫窓)
遊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이 경관 속으로 직접 들어가 노닐며(遊) 즐김 	거리와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遠遊, 近遊로 나눔.
	探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수한 천연경관, 문화경관 속으로 들어가서 노닐며 즐김 	유람, 관광
	点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거점에 조경을 하고, 그곳에서 천연경관을 즐김 	누정에서 즐기
	回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을 중심으로 하여 일정한 공간을 거닐다가 처음 자리로 되돌아옴 	회유식 정원, 공원

품격을 매기기도 하였다. 식물뿐 아니라 동물도 그러하였으니, 사슴 같이 작고 온순한 소동물, 소리나 빛깔이 아름다운 조류, 잉어 등과 같은 어류가 취경의 대상이 되었다. 『삼국사기』를 보면, 문무왕 14년(674)에 “궁내(宮內)에 못을 파고 산(山)을 만들고 화초를 심고 진기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조경은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생물을 소재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취경 방식으로 조경을 하면, 바라는 효과를 신속하게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원래의 환경과 경관을 망치는 부작용이 크다.⁹⁾

이렇게 취경하는 방식을 다시 나누어보면, 있는 그대로 베끼는 寫景, 좋은 것만 골라서 끌어오는 選景 등이 있다.

• 取景 1: 寫景

이런 저런 옛 조경, 취경 중에서 현대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것은 궁궐이나 민간 제택이나 별서의 조경일 것이니, 이것들은 대체로 능력이 닿으면 갖가지 호사를 하려고 하는 일반적 심성에 바탕을 둔 세속적 조경이기 때문이다.

특히 궁궐은 매우 너른 땅을 차지하는데다가 우리 궁궐은 대체로 산기슭에 자리 잡으므로 원래 주어진 경관이 아름답고 환경이 건강하다. 이런 땅의 지형과 물길을 가다듬고 나쁜 식물을 솜아낸 다음에 부분적으로 仙境을 베푸는 형식을 취하므로, 원래는 집밖의 천연경관을 베끼듯 하는 조경, 즉 ‘寫景’으로 이루어진다.

寫景은 원래 자연의 경관을 베낌에 있어 그 크기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크기가 축소되고, 경물도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게 되면 다음에 설명하는 縮景이 된다. 즉 실제 조경에 있어서 원래 축척대로 사경하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므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축경에서 이런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다.

寫景의 문화적 전통은 오늘날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다. 가장 자연적이어야 할 생태공원이나 생태하천을 ‘만들’ 때에 동원되는 조경은 자연을 그대로 베끼고자 하는 寫景의 방식을 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FRP로 만든 인조바위, 전기로 물을 끌어올려 떨어뜨리기를 되풀이하는 인공폭포, 역시 FRP로 만든 인조나무, 꽃 등을 심어 심산유곡을 표현하는 사이비 사경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寫景은 자연을 본뜨려고 오히려 인공의 노력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연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키고 가꾸는 ‘보존’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지도 모른다.

• 取景 2: 選景

저 건너 저 건너 춘향 집 보이는데 양양(洋洋)은 상풍(常風)이요, 점점 찾아 들어가면

9) 88 올림픽경기장을 신속하게 준공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큰나무들을 뽑아다가 옮겨 심은 적이 있다. 지금도 전국 산야에서 잘 크고 잘 생긴 나무들은 이러한 취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화요초(琪花瑤草)는仙境(仙境)을 대롱(大弄)하고, 나무 나무 앉인 새는 호사를 자랑한다. 옥동도화만수춘(玉洞桃花滿樹春)은 유랑(劉郎)의 심은 것과 현도관(玄都觀)이 분명하고 형형색색 화초들은 이향(異香)이 대로우(大路迂)하고 문앞으 세류지(細柳枝)는 유사무사(有絲無絲) 楊柳絲요, 들충 측백 전나무는 휘휘칭칭 얼크러져서 단장 밖으 솟아 있고, 수삼층(數三層) 화계상(花階上)에 모란 작약 영산홍이 칩칩이 쌓였는데, 송정(松亭) 죽림 두 사이로 은근히 보이는 것이 저게 춘향의 집이로소이다. (춘향가)

이 글은 비록 상상의 조경이지만 춘향의 집에 베풀어진 조경이다. 소나무, 대나무와 같은 기품 있는 수목으로 큰 틀을 잡으면서 기화요초가 만발한仙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조경이 판소리에 나온다는 것은 옛 조경에서 하나의 판형으로 굳어져 있던 것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마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원래 갖춘 자연 환경과 경관의 조건이 좋은 곳에 자리 잡고, 담을 둘러친 안쪽에는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것,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만 골라 심고 가꾼 형식이다. 아무 곳이나 짓지 않고 아무 것이나 다 쓰지 않고 그 장소와 요소를 특별히 고른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조경을 ‘選景’이라고 불러보자.

한편,仙境은 상상이 아닌 현실 세계의 조경에서도 잘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이 예술가이자 예술 애호가이던 안평대군(1418-1453)이 살던 비해당이라는 집의 조경 또한 다음과 같은仙境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정원으로 들어오는 길에는 대나무를 심고, 문 앞에는 버드나무를 심었다. 섬돌 머리맡 꽃밭에는 작약·동백·모란 등을 심고, 누각 옆에 배나무를 심었다. 창밖에는 파초를 심고 시령을 만들어 장미넝쿨을 올리며, 담 부근에는 살구와 단풍을 심었다. 꽃밭의 앞에는 가산을 만들고 또 장방형 연못을 파서 연꽃을 심었다. 정원에서는 사슴을, 작은 시내에서는 금계를, 정원 소나무에서는 학을 길렀으며, 이외에 척촉화, 사계화, 백일홍, 삼색도, 금잔화, 옥잠화, 거상화, 영산홍, 치자화 등 온갖 꽃이 심어져 있었다.

사실 대부분의 조경은 이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하므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대표적인 조경 방식이다. 재료를 손쉽게 가져올 수 있는 현대 조경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현대 조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목이나 초화의 종류는 많아봐야 100종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 땅에서 자라는 식물의 종류는 수 만 종이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선택하는 까닭은, (1) 사랑 받는 식물만 계속하여 선택된다; (2) 그러므로 나무시장, 꽃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심을 수 없다; (3) 게다가 정부 공사의 조경을 할 때에는 조달청 단가를 매길 수 있어야 한다;

(4) 아무리 좋아도 자라는 환경이 맞아야만 한다. 그러나 옛날에 선택하는 기준은 환경이 맞아 야 하고, 구할 수 있어야 하며, 의미가 있는 식물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 取景 3: 縮景

자연에 있는 그대로 베끼는 寫景 또는 選景을 하는 방법과 비슷한 것으로서, 실재하는 자연 경관과 그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크기를 축소하는 ‘縮景’ 형식이 있다. 縮景은 寫景 또는 選景으로 꾸민 實景에 비해 축척이 작을 뿐이지 형태는 방불해야 하므로 사실적이다.

자주 쓰인 것이 石假山을 만들어 명산의 운치를 살린다든지, 또는 壽石이나 盆栽로써 실재하는 큰 스케일의 자연경관을 대신하기도 한 방식이다. 경복궁 후원에 가면 중국의 아미산을 본뜬 조경이 있는데, 얼핏 보면 돌계단처럼 보인다.

신도시나 아파트 단지의 모형도 이런 방식의 현대적 표현이다.

3) 借景-밖에서 안으로 가져오지만, 실제로는 가져오지 않는 조경

취경은 비단 우리 옛 조경에만 해당하지 않고 동서고금 조경에 두루 해당하는 방식인데, 이런 조경은 시간과 비용과 재능이 모두 필요하니, 누구나 다 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원해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부유하면서 안목이 있으면 비원이 되고, 돈 많고 천박하면 놀보네 집이 되며, 찢어지게 가난해도 갖추고자 하면 장승업네 집이 된다.¹⁰⁾ 그리고 크게 꾸미지 않더라도 격조 높은 조경을 이룰 수 있음은 겸재 정선이 살았던 인왕산 골짜기 집 仁谷幽居를 봐도 알 수 있고, 단원 김홍도가 살았던 檀園을 봐도 알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절제된 조경의 극치는 다음 시조에서 펼쳐진 상황이 아닐까 한다.

十年을 經營하야[하여] 草廬 한 間 지어내니
半間은 淸風이오 半間은 明月이라
江山을 드릴 댈[들일 데] 업스니[없으니]
돌너두고[돌려두고] 보리라
金長生



단원의 단원

10) 영화 『醉畫仙』을 보면 평생 떠돌던 오원이 모처럼 머물며 살던 초가집이 나온다. 사건보다 배경을 눈여겨본 사람은 집은 곧 허물어질 것 같은 데도 장독대 곁 담 밑에 심은 국화가 유난히 화사하면서도 처절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던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이 장생하는 집은 이미 자연의 극치인 청풍과 명월로 가득 차 있으니, 굳이 집밖의 경관을 집안으로 끌어들이 필요가 전혀 없는 경지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집밖의 경관을 집안에서도 능히 보고 즐길 수 있는 ‘借景’을 이룬 상황이지만, 한 걸음만 나서면 집 둘레의 경관을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상황이기도 하다.

흔히 생각하는 借景은 이런 것이다. 즉 자기 집 울타리 밖에 있는 훌륭한 경관(푸른 산, 맑은 하천, 푸른 바다 등)을 자기 집안에서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교묘한 장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누마루에서 울 너머 보게 한다든지, 울 밖에 울창한 송림이나 죽림을 가꾼다든지 하는 방식은 흔히 쓰던 것이다. 이처럼 借景은 가장 적게 인공을 가하고서도 또 가장 쉽게 取景하는 방법이다.

借景은 문자 그대로 景觀(景)을 빌어 쓰는 것이니(借), 집밖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관을 인간이 몸소 찾아가거나 집안으로 직접 끌어오지 않고 집안에서 거저 조망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여, 구태여 실제로 조경을 하지 않고서도 바라는 효과를 얻도록 하는 방법이다. 북동 아시아 문화권의 사람들은 정원을 만들 때에 가장 중요하게 추구한 것이 바로 이 차경을 잘 하는 것이었다.¹¹⁾

이 방법은 특히 자기 집에 인접한 환경이 밀집한 주택지라던가, 복잡한 시장이라던가, 더러운 공장 등과 같이 시끄럽고 지저분하여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정원에서 쓸모가 있다.

울타리 또는 울타리 옆에 심은 높은 수목으로써 인접한 近景을 차단(遮景)하고, 그 너머에 있는 산과 하늘 등과 같은 遠景, 또는 들판, 수림, 하천, 마을 등과 같은 그런 대로 볼 만한 中景만이 시야에 들어오도록 하는 수법을 쓴다. 그리고 주변이 자연림인 경우에는 울타리 밖의 숲을 그대로 두기도 하며, 조망하기 좋은 고지대에 亭榭나 樓閣을 짓고 臺를 베풀어 주변 경관을 즐기기도 한다. 또는 건물의 창이나 문을 보름달이나 부채와 같은 형태로 만들고 그것을 그림틀로 삼아 차경하여 그 시각효과를 더 높이기도 한다.

이처럼 ‘借景’은 말 그대로 남의 경치, 임자 없는 경치를 돈 안내고 빌려와서 본다, 거저 훑쳐본다는 뜻이라서, 대개 가장 좋은 경치를 독점하기 위해 좋은 자리를 독점하여 조경을 하는 것을 차경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진정한 차경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경관, 고정된 경관을 초월하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느끼는 경관, 유동하는 경관이다.

고고한 향을 찬 겨울 바람에 날리는 매화, 봄바람에 하늘거리는 버들가지와 새싹, 은빛 물결과 노니는 원앙, 대바람, 솔바람 소리, 장대비를 후드득 맞고 있는 파초잎, 햇빛 너머로 비치는 단풍잎, 온 누리를 뒤덮는 흰눈, 삭풍에 흐느끼는 나뭇가지..., 시간의 흐름,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경관, 자연의 신비한 변화 그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 조경이 바로 진정한

11) 차경의 원리에 대해서는 황기원, “『園治·興造論』 연구(2): 因借論을 중심으로”, 『환경논총』 32권, 1994 참조.

한 차경의 경지이다.

이런 경지의 차경을 하자면, 사람의 감수성이 매우 섬세, 예민해야 하고, 자연에 대한 사랑이 깊어야 한다. 나아가서 자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있으면 더욱 훌륭한 차경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산 윤선도의 다음 시조에서 펼쳐진 상황이 아닐까 한다.

간밤의 눈_ㄴ 後에 景物이 달났고야
 압희는 萬頃琉璃 뒤희는 千疊玉山
 아거시 仙界 佛界_ㄴ가 人間이 아니로다

이러한 차경은 특히 風景, 光景이라는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룬다. 조경에서 가장 자주 쓰는 경물의 하나이고 자연경관을 이루는 대표적 경물의 하나인 나무가 이루는 경관은 어떤 상황에서 가장 아름다울까? 그것은 햇빛과 바람, 風光이 아름다울 제에 제대로 볼 수 있다. 나무의 잎이 아름다움은 그냥 햇빛만 받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산들바람에 쉴 새 없이 흔들리기 때문이고, 그 잎이 더욱 아름다운 까닭은 밝고 어두운 잎들이 쉴 새 없이 명암을 교차하면서 보석처럼 반짝이기 때문이다. 특히 비 갠 후는 더욱 아름답다. 이처럼 빛과 바람이 어우러져 만드는 양명하고 역동적이며 수려한 경치가 風景이고 風光이다.

또 風景은 四時 風景이라는 말처럼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나 한 평생 끊임없이 변하면서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경관이기도 하다. 바람은 사람을 집안에 묵혀 두지 않는다. 風은 찌든 일상생활의 먼지를 훌훌 털어 버리고자 바람을 쐬는 消風이자, 싱그러운 바람결을 따라 산과 들을 거니는 逍風이 된다. 바람결에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를 듣고, 빗살 아래 펼쳐진 자연의 모습과 만나는 삶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風景·風光·光風 모두 자연 자체의 현상을 ‘즐긴다’는 뜻과 ‘상쾌하다’는 뜻이 함유되어 있다.

이처럼 바람을 즐기고 그 바람이 만들어 내는 경치를 즐기게 되면 사람은 “바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아해진다. 그래서 風格, 風骨, 風貌, 風雅 등과 같은 좋은 인품을 가리키는 말이 생겨났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자연을 즐기는 좋은 태도를 지니게 된다. 風流는 원래 바람둥이가 아니라 이런 좋은 태도인 것이다. 특히 시가나 편액 등에 종종 등장하는 “光風霽月”이라는 말에 들어 있는 光風은 위에서 본 그런 뜻을 빌어서 도량이 넓고 쇠락한 인품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차경은 밖에서 안으로 가져오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가져오지 않는 조경이다. 그리고 안과 밖에 걸쳐 있는 조경이다. 이것의 문화적 전통은 실로 깊고 넓으나, 현대에 와서는 거의 다 망각된 것 같다. 그런데 이런 경지의 차경은 이미 집밖으로 나선 상황이 되니, 경관을 생활 가까이 끌어오는 取景과는 반대로 사람이 경관 속으로 들어가 노니는 경지인 ‘遊景’이 가능해진다.

4) 遊景-밖을 거니는 조경

遊(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리 좋은 뜻으로 쓰이지 않는 것 같다. 왜냐 하면 유람, ‘나가 논다’, ‘주색에 빠지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고대 중국에서 황제의 어진 정치를 가리키기도 하고,¹²⁾ 莊子가 주장한 것처럼 사람의 정신이 추구하는 궁극, 즉 자유를 가리키기도 하였으며, 禮記에서 가르치듯 학문하는 사람의 중요한 생활태도를 가리키기도 하였으니, 대단히 뜻 깊은 말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개념에서 출발하여, 遊는 집밖으로 나아가서 자유롭게 노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遊景은 사람이 집을 나서서 천연의 경관 속을 이동하는 방식이며, 그것도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유람, 거닐면서 노닐면서 보면서 즐기면서 나아간다는 방식이다. 현대의 우리는 이것을 探訪이라고도 하고, 觀光이라고도 하고, 回遊라고도 하여 조경의 본류이라기보다는 지류로 보지만 어쩌면 이것은 조경의 본원인지도 모를 정도로 중요하다.

왜냐 하면 그것을 성취하자면 과학의 지식과 탐험이라는 행동과 관조라는 의식, 그리고 즐거움에 대한 감수성,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그것을 찾아 나서는 용기, 그리고 고도의 설계와 섬세한 시공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遊景을 다시 3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1) 거칠고 낮은 원생의 자연 속을 용감하게 돌아다니는 探景이다. 실제로 많은 유경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단가 중의 하나인 ‘探景歌’, ‘風月江山’, ‘竹杖芒鞋’ 등을 보면 “대 지팡이 짚고 짚신 신고 좋은 경치를 찾아다니면서 보고 느낀 감흥을 노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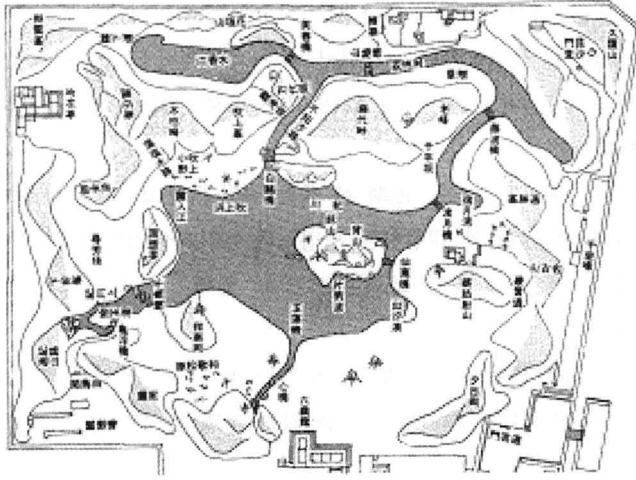


선비들의 유경-정선의 莊洞春色

탐경과 관련하여 주목할 문화적 전통은 선인들의 ‘유람 기록’이다. 적지 않은 선비, 문인, 화가들이 지리산, 금강산 등 명산을 등산한 기록인데, 산 자체는 물론이고 오가는 여정에서의 유경까지 포함한다.

(2) 그러나, 곳곳의 명승, 그리고 명승에 베풀어진 정자 등과 같은 시설을 빌려 즐기는 행위, 즉 일정한 거점에 조경을 하고, 그곳에서 천연경관을 즐기는 点景이라는 방식도 있다. 겸재, 단원, 오원 같은 화가들, 그리고 수많은 문인들이

12) 고대 제왕은 봄에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종자가 없는 가난한 농가를 찾아내고, 조 정에서 종자를 제공한다면, 가을에는 추수의 정도를 살펴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것을 遊라고 하고, 각각 春遊, 秋遊라고 하였다.



일본의 대표적 지천회유식 정원 六義園

그러한 방식으로 경관을 즐겼던 문화가 중요한 유산이다.

(3) 담양 소쇄원을 거닐어 보면, 계류를 중심으로 하여 한 바퀴 돌아다니다가 처음 자리로 되돌아 올 수 있다. 이런 방식을 回遊라고 한다. 한정된 공간 안에 다양한 경물을 늘어놓고(자연 경물과 인공 경물 모두), 일정하게 설계한 길을 따라 거닐면서 걸음마다 달라지는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섬세하게 연출한다. 일본 정원, 중국 정원에서도 이런 방식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현대 공원이나 놀이동산의 배치는 대개 이 방식을 취한다.

그리고 거니는 거리,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遊景을 다시 2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저점(집, 정자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가까운 거리 안에서 거니는 것을 近遊, 며칠 씩 걸리는 먼 거리를 찾아가면서 거니는 것을 遠遊라고 한다.

5) 意景-뜻으로 이루는 조경

그런데 이 遊景은 반드시 현장으로 사람이 몸소 돌아다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묘미가 있다. 이것은 때로는 작지만 깊은 뜻을 담은 縮景 — 작은 뜰 정원, 더 작은 석가산이나 수석 — 을 의식 속에서 거닐면서도 가능하고, 벽에 걸린 산수화라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가능하다.

원래 조경에 큰 영향을 미친 산수화는 병석에서 누운 채로 유람하는 臥遊에서 비롯되었다.¹³⁾ 서양의 풍경화도 이와 비슷하여, 사람들이 거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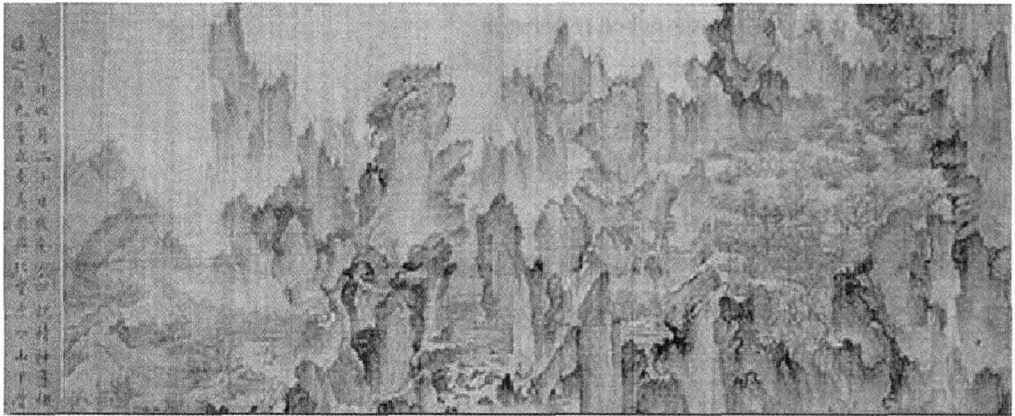
겸재의 臥遊

편하게 거닐면서 쳐다보는 사이버 유람의 효용을 가지고 시작되었다.¹⁴⁾

遊景은 매우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이고 그러면서 매우 문화적이고 사이버적인 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보다 한층 더 높은 경지에 가 있는 것은 바로 ‘意景’, 즉 뜻으로 이루는 조경, 意境을 이루는 조경이다.

즉 意景은 怪石 한 점, 나무 한 그루, 池塘 한 쪽을 집안에 두고, 그것에 실재하는 자연경관의 의미를 추상화하거나 상징화하여 대신하는 방법이다. 더 나아가면 그런 뜻을 담은 글이나 그림을 암벽, 담, 건물의 벽 등에 직접 쓰고 새기거나, 편액이나 주련으로 만들어 붙여서 그 경지를 즐기기도 한다.

縮景과 意景은 借景이나 寫景에 비해 기법상으로는 인공의 정도가 강하지만 의미상으로는 自然의 정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보



몽유도원도- 안견

- 13) 원래 조경에 큰 영향을 미친 산수화는 병석에서 누운 채로 유람하는 臥遊에서 비롯되었다. 서양의 풍경화도 이와 비슷하여, 사람들이 거실에서 편하게 거닐면서 쳐다보는 사이버 유람의 효용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臥遊, 즉 ‘누워서 유람한다’라는 개념은 4세기 중국 남조 송대의 화가이자 화론가인 宗炳(375-443)이 『畫山水序』에서 제시한 것이다. 그는 젊고 건강하던 시절 여러 차례 천하의 명산대천을 두루 유람하면서 실제 산수미를 체험하면서 창작에 임하였는데, 만년에 병을 얻어서 고향인 강릉에 돌아와서 다음과 같이 탄식하니, 여기에서 ‘臥遊’ 개념이 구체화된다. “늙음과 질병이 함께 찾아오니, 명산을 두루 유람하기가 어렵겠구나, 오로지 마음을 맑게 하고 도를 체관하면서, 누운 채 이를 유람해야겠구나!” 즉 그는 늙고 병들어 이제 다시는 명산을 몸소 유람하면서 즐길 수가 없으니, 명산을 그린 산수화를 방안에 붙여놓고 병석에 누운 채 보고 즐길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는 노약과 와병 때문에 부득이 와유를 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후대에 와서는 이것이 산수화의 효용 중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고, 특히 산수화를 감상하는 태도와 자세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 14) 알프스 산맥은 지금도 넘어가기 쉽지 않는데, 17-8세기에는 더욱 힘들었다. 그래서 그런 험난한 절경을 그린 풍경화가 부자들한테 대인기이었다. 이런 그림이 변하고 변하여 이른바 ‘이탈소 그림’이 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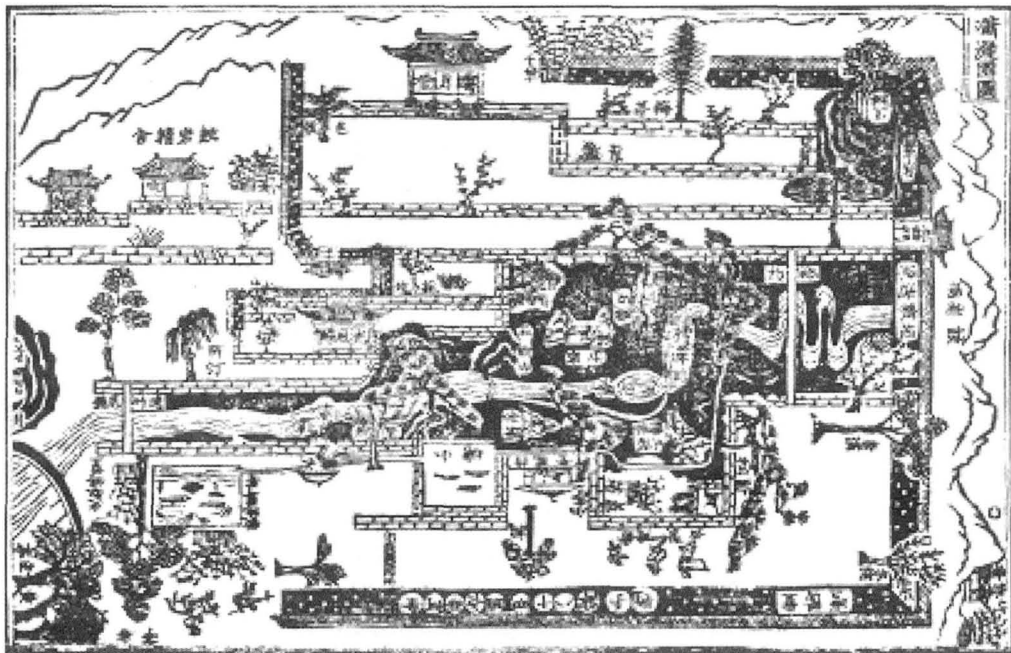
다는 하나의 사물의 이면을 보면서 그 숨은 허상을 실상으로서 넓게 헤아려 상상하는 경지를 보다 깊은 취미라고 보는 태도인 것이다.

안평대군의 부탁을 받고 안견이 그린 夢遊桃源圖는 意景의 좋은 예이다. 무릉땅 도원경을 묘사한 도연명의 桃花源記를 본뜬 개념을 그린 것으로서, 현실에 없는 상상의 경관을 묘사한 그림이다. 오늘날 놀이동산의 놀이시설이나, 애니메이션 영화나 게임 등의 배경이 되는 경관 등은 모두 이러한 意景에 해당한다.

6) 담양 소쇄원(瀟灑園)의 해석

1530년 경에 양산보 선생이 조영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소쇄원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원림의 하나이다.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장원봉 산록의 계곡에 자리 잡은 소쇄원은 林泉回遊式 園林(계류를 중심으로 거닐 수 있도록 짜여 있는 원림)이다. 그리고 원림 주위에는 무등산, 장원봉의 산록에 있는 성산 등의 산악이 있어 천연의 차경 자원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성산은 성산별곡으로 유명한 송강 정철이 차경과 유경을 하던 유적이다.

소쇄원은 한국 전통조경 양식의 전부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양식을 잘 나타내는 뛰어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래 <표 3>은 소쇄원에서 적용된 전통 조경의 양식들을 정리한 것이다



목판본 소쇄원

〈표 3〉 담양 소재원에 적용된 여러 가지 조경 양식

유형	형식	소재원
取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의 경관을 取하여 생활 속으로 끌어들임 造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을 위한 주택의 후원 형식으로 임천회유식 원림을 조성함. • 계류를 끌어들여 조경용수 및 생활용수의 수원을 삼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밖의 천연경관을 베끼는 방식으로 집안에 경관을 만듦 寫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생의 대숲 경관을 입구에 조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밖의 천연경관 중에서 형태가 좋거나 의미가 깊은 요소만 골라서 끌어들임 選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릴 적에 즐겨 놀던 계류를 선정하여, 그 일대에 원림을 베풀. • 원림 내의 식물을 매우 계획적으로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경관의 생김새는 비슷하나 스케일을 줄임 縮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림 내의 천연의 바위에 자라바위라는 이름을 붙이고 완상함. • 아주 작은 연못을 조성함. • 계류에 위태로운 다리를 얹어 심산유곡처럼 보이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의 뜻(意)만 상징함 • 실제 경관의 의미를 추상화하거나 상징화하여 대신함 意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일하는 선비의 품격을 나타내는 어휘(掃灑, 光風, 霽月, 待鳳 등)를 건물 이름으로 함. • 품격과 상징성이 큰 식물을 구하여 키움. • 원림 안팎의 경관을 노래하는 시조를 짓고, 이를 적어 담에 붙여두고 회유하면서 즐김(48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을 빌어 씀(借) • 집밖의 경관을 그대로 둔 채 집안에서 보고 즐김 借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 너머 경관을 차경할 수 있도록 건물 및 전망대 위치를 정함. • 뒷산 계류가 그대로 흘러들어오도록 담 아래를 개방함. • 원림 내에서 회유하면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을 차경하도록 함.
遊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이 경관 속으로 직접 들어가 노닐며(遊) 즐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遠遊와, 近遊 모두 가능하게 함. • 원림 내부와 외부의 경물을 읊은 48명이 각각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수한 천연경관, 문화경관 속으로 들어가서 노닐며 즐김 探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뒷산(북바위) 일대를 탐경할 수 있도록 뒷담을 개방함. • 무등산 유산객을 손님으로 맞아 함께 즐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거점에 조경을 하고, 그곳에서 천연경관을 즐김 点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풍각, 제월당뿐 아니라 너럭바위 일대를 점경의 중심으로 활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을 중심으로 하여 일정한 공간을 거닐다가 처음 자리로 되돌아옴. 回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림 내에서 계류를 중심으로 회유가 가능하게 함.

2. 이런 조경을 가능케 했던 바탕

사실 조경이나 건축이나 또는 여느 예술이 다 그러하듯 어느 누가 먼저 이론과 방법론을 만들어 퍼뜨린 다음에 설계가나 예술가가 그 이론과 방법론에 따라 창작하고, 일반 대중은 그에 따라 향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천재가 했던 둔재가 했던 문외한이 했던 간에 수많은 창작과 모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떤 원리 또는 방식이 자리 잡는다고 할 것이며, 우리 옛 조경 또한 그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본다. 그러나 대체로 현대에서 옛 조경을 돌이켜 볼 때 그런 조경을 가능케 했던 바탕으로서 몇 가지를 내세우고 있어 여기에서 간략하게 소개해 볼까 하며, 먼저 한국 경관의 바탕을 이루는 자연적 특성을 알아보기로 하자.

1) 한국의 자연환경의 조건

환경결정론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자연환경이 조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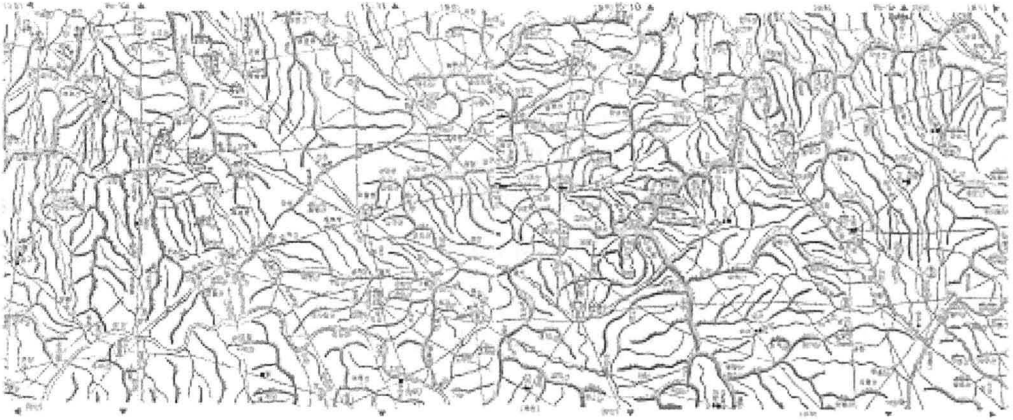
기후는 사철이 뚜렷하게 구분되며, 비는 여름철에 집중하여 내린다. 편서풍과 북풍이 강세를 이루므로, 특히 북쪽에 산을 등지고 놓인 곳을 선호한다. 그리고 태양의 방향인 동향과 남향을 선호한다.

사철이 뚜렷한 기후와 계상의 변화는 자연 식생과 동물상에도 뚜렷한 특징을 지운다. 그러나 계절이 이루어내는 환경조건에 맞추어 피고 지는 꽃으로서 사람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은 매우 귀한 편이고, 오히려 여름의 녹음이나 가을의 단풍이 우리에게 익숙한 경관이다. 특히 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중요하므로 녹음수를 좋아하고, 겨울에는 햇빛은 산야에 생기를 이어가는 상록수를 좋아한다.

원칙적으로 남향을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등, 환경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이 겹쳐서 향에 대한 선호가 까다로웠다.¹⁵⁾ 한편 여름철의 햇볕이 강하므로 그늘을 매우 선호한다. 그래서 정자목, 정자 등 그늘을 제공하는 경물을 애용하는 편이다.

우리 나라의 자연환경의 특징은 산악지형에 있다. 국토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산이 많은 땅이고, 그래서 자연경관은 주로 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는 늘 산에 기대고 산을 끼고 산을 본다. 전국의 산들은 백두대간을 줄기로 하여 정맥과 지맥으로 나누어지면서 국토를 덮고 있다. 동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놓인 백두대간에 따라 형성된 지형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국토 형국을 이룬다. 곳에 따라서 매우 험준한 산악이 있는가 하면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완

15) 이런 자연환경조건과 풍수지리설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유난히 집의 좌향에 대해 까다롭게 만들었다. 특히 방위 중에서 남향을 가장 좋아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현대에 와서는 일조권이라는 권리의 차원으로까지 심화되어 있다. 남향에 못지않게 중요한 향은 동향이다. 이것은 동향이 남향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양명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실리가 있기도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동향이 바로 태양이 떠오르는 방위라는 점이다. 그래서 주택에서 동쪽은 대개 집안의 어른인 남자의 공간으로 배정된다. 한편 서향은 석양별이 무더위를 가져오므로 좋지 않다.



충청도 일원의 대동여지도

http://www.jayuchon.com/walk/daedongyeojido/dd15_02.html

만한 구릉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인간이 거주하고 생산할 수 있는 가용지는 이러한 산악 사이의 완만한 경사지나 작은 평지다.

산의 능선은 분수령을 이루니 골은 결국 水界를 이루고 있어 농사짓고 물먹고 사는 우리네 삶의 터전은 수계를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삶터는 늘 산과 물과 어울리게 마련이다. 우리 삶은 地緣뿐 아니라 水緣에 의해 결정되거나 영향을 받아 왔다. 그리고 국토의 지질은 화강암이나 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맑은 물을 넉넉히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특이한 지형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다운 경관의 골격을 이루었다.

대부분의 하천은 동쪽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든지, 북쪽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른다. 이 하천을 따라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오면서 평지가 발달하고, 농사가 잘 되고 물산이 모이는 그 평지에 고을과 도시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지세에 따라 형성된 수계도 특징이 있다. 마을이 자리 잡은 산기슭에는 대개 작고 맑은 개울이 흘러내려서 마을 앞 들판을 지나 하천으로 합류하게 된다. 이 하천은 주민들로 하여금 마실 물, 살림에 쓰는 물, 빨래하는 물, 농사짓는 물을 가까이에서 구할 수 있게 하면서, 하수로 역할도 해 주었다. 개울이나 하천이 없는 경우에는 우물을 파서 이를 대신하였다. 또 이 하천들은 큰 강으로 합류하여 삼면의 바다로 흘러가는데, 대체로 속도가 느리고 유역이 넓어서 개방된 경관을 제공해 준다.

이런 지형에서 벼농사가 주된 생업이니, 물대기, 모심기, 김매기, 거두기 등 많은 일들을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마을을 이루고 모여 살게 되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산을 등지고 그 산기슭에 마을을 이루고 앞의 들판을 바라보는 형국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다. 뒷산은 차가운 북풍을 막아주면서 땀감이나 부식끼리를 제공해 주며, 앞의 들판은 농경지로서 주식끼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2) 자연을 보는 문화-자연관

이러한 한반도의 자연 환경은 매우 특징 있는 삶을 이루어내었으니, 이른바 '明堂'의 개념이다. 어떤 곳이 명당인지 아닌지를 엄격하게 따지는 풍수가들의 법칙이 있지만, 대체로 바람을 간직하고 물을 얻을 수 있는(藏風得水) 곳, 산을 등지고 물을 낀(背山臨水) 곳을 대체로 명당이라고 한다. 이런 곳은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좋아하고 바라마지 않는 삶의 환경이다. 풍수지리를 과학이 아니고 미신이라고 낮추어 말하기도 하지만, 이런 곳은 현대 과학으로 따져보아도 한국의 자연 환경 조건을 잘 살려서 골라낸 좋은 환경이 분명하다.



산에 기댄 명당의 삶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이상적인 환경에 대한 그림이 잠재하고 있는 것 같다. 뒤에는 야트막하지만 숲이 무성한 산을 등지고, 그 앞에는 문전옥답이 펼쳐져 있는 곳, 뒷산은 땀감이 될 나무도 무성하고, 나무 사이에 산나물이나 버섯 등 식용식물이 넉넉한 곳, 그 산에서 흘러나온 맑은 물이 하천을 이루면서 평야를 적시고 흐르는 곳, 그 양지 바른 산기슭에 한 집 두 집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있는 곳, 멀리 내다보이는 곳에 정자나 누각이 있는 곳, 평야가 끝나는 곳에 먼 곳을 오가는 한길이 나 있는 곳..., 이런 곳을 좋게 여기며, 일종의 이상적 경관으로 마음 속에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곳은 환경적으로 매우 건강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우리 선조들의 지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마을 뒤편 산기슭의 숲을 보자. 이 숲은 배경으로서 매우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방풍 등 기후 조절장치로서 매우 훌륭하다. 그런데 이 숲을 살찌우게 하는 것은 숲 뒤의 산에서 흘러내리는 유기물인데, 그 중에는 마을 뒷산에 모신 산소에서 유출되는 것도 포함된다. 이 유기물은 숲에서 걸러짐으로써, 마을 안의 우물물이나 샘물을 오염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자연경관이 전체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몇 개의 사물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選景'의 입장이 앞으로 나서고, 결국 원생자연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범상한 수준을 넘어선 '名山大川'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이 선경에 의한 자연경관의 구성방식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표현되는데, 그 중에서 자연경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勝景'이다.

그것은 일정한 구역의 자연환경을 범위로 하여 그것의 경관을 대표하는 특출하게 수려한 사물에 집중적으로 뜻을 부여하는 방식으로서 관동팔경·단양팔경·한양팔경·남산팔경 등이 좋은 예이다. 그리고 또 장생불사를 표상하는 해·산·물·돌·소나무·달·불로초·거북·학·사슴 등 열 가지 경물이 어울린 경관을 그림·조각·자수 등의 형식으로 표현한 十長生圖도 좋



十長生圖

www.hoammuseum.org/theme/khd/sub1_3.html

은 예로 들 수 있다.

이 명당이자 승경은 “보기에 좋고 먹기에도 좋은 떡”과 같다. 즉 그저 보기에 좋은 경관이 아니라 살기 좋은 환경이다. 그것은 그저 살기 좋은 환경일 뿐 아니라 나아가서 ‘살아 있는’ 환경이고, 더 나아가서 ‘뜻있는’ 경관이다.

사실 이러한 명당과 승경은 엄밀하게는 자연경관이 아니라 문화경관의 영역에 걸치게 됨을 볼 수 있으니, 이것이 한국인을 위시한 동양인의 경관관을 설명하는 특징이다. 대부분의 명당에서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아니라 모자라는 것은 채우고[裨補] 넘치는 것은 누르는[壓勝] 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승경에 있어서도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다든지, 건물 등 경물을 추가한다든지 하는 문화 행위가 역시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원생자연을 대상으로 한 경관은 결국 문화화된 자연경관이라는 점이 명백해진다. 그러면서도 과도한 변화보다는 현명한 적응을 꾀한 옛사람들의 지혜가 돋보인다.

그러므로 옛날 사람들이 집안에서 차경을 하는 집밖의 환경과 경관은 물론이고, 집밖에서 노니는 유경의 대상이 되는 환경과 경관도 거칠고 위험한 원생 자연이 아니다. 어느 정도 사람의 손길이 닿은 자연, 즉 문화가 이루어진 자연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나라의 국토 방방곡곡 전부 하나의 정원이고 공원(요즘 개념으로 보면)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옛날 사람들은 집터 잡는 데에 있어 주변의 자연경관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웠다. 그들은 “산수는 정신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화창하게 하므로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거칠어진다”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면서도 자연경관이 좋은 곳은 대개 경제적 여건이 나쁘므로 집짓고 살기에 반드시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높은 산과 급한 물, 험한 계곡과 거친 여울은 잠시 즐기기는 좋으나 집터로서는 마땅치 않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런 곳들은 집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2~30리 밖에 있어서 생각날 때마다 가서 즐기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이와 아울러 풍

수지리의 형국을 이루는 주변의 산들은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은 조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상징적으로도 좋은 의미를 가질 때에 길한 땅이라고 여겼다.

3) 자연과 맺어진 문화

• 종교

유교는 주택이나 정원을 수양의 도량으로 삼았다. 유교의 덕목을 익히고 실천함을 일생의 과업으로 여겼던 상류·양반계급의 사람들의 주택에서는 단란하고 화평한 가정생활을 꾸려나갈 뿐 아니라, 유교의 대표적 덕목인 조상 숭배, 남녀유별 및 장유유서(長幼有序)의 관념과 상하계급의식을 철저하게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런 주택과 정원은 경제적 기반이 든든한 선비들만 누릴 수 있는 호사이었다.

한편, 거의 대부분의 선비들은 벼슬을 하여 정치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정치적 투쟁에서 패배하면 향리에서 때를 기다리면서 한가롭게 지내거나(隱遁), 아예 속세를 떠난 삶을 살았다(隱逸). 이 모두 자연을 벗 삼아 농경, 사색, 음풍, 소요 등으로 세월을 보냈으니, 借景과 遊景, 그리고 意景의 세계가 바로 이러한 생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도교[신선사상], 불교는 물론이고 토속신앙도 옛날부터 우리나라 조경에 큰 영향을 미쳤다.

• 경제

현대에도 주택 뜰에 작은 정원을 만들고 가꾸려고 해도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 비싼 땅을 내놓아야 하고, 식물이나 소동물을 건강하게 키우고 조경하자면 비용, 인력, 기술, 그리고 정성이 다 필요하다. 이런 점은 예전, 지금보다 국가나 개인의 경제적 여유가 넉넉지 않았던 시절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뿐 아니라 개인의 주택을 지을 때에는 사회적 신분과 벼슬의 품계에 따라 규모를 정해 두었기 때문에, 부유하지만 신분이 낮은 상인 계층에서 본격적 조경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은 취경에 의한 본격적 조경보다는 차경, 유경, 의경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사유가 되기도 하였다.

3. 결론-조경의 문화적 전통

1) 전통문화와 문화적 전통

문화가 무엇인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 “문화는 사람답게 사는 방식”이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르게,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대단히 평범하면서도, 인류의 문화와 역사를 관통하는 원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의 삶 중에서 문화가 아닌 것이 없다. 의식주 할 것 없이 죄다 문화이다.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조경은 사람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방법,

그리고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방법, 즉 자연환경을 잘 다루어 사람답게 사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런 문화 중에서 동시대의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고, 옛날의 것은 박물관(현장 박물관 성격인 민속촌 등 포함)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이런 생각은 다시 “문화는 사람답게 사는 방식일 뿐 아니라, 그 방식에 있어 수월성(뛰어남)을 보여주는 생각, 행동, 결과 등이다”라는 생각으로 발전한다. 동서고금의 문화사에서 뽑내고 있는 모든 예술, 문학, 학문이 이런 문화에 해당한다.

이것들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조경은 소채원이나 비원처럼 문화유산 수준으로 보존되고 있는 것, 또는 공원, 아파트 조경, 박람회 조경처럼 많은 비용과 기술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것 위주로 이해하게 된다.

문화는 배우고 물려받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조건 아래에서 시행착오의 경험을 거듭하면서 가장유리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생활양식을 선택한 것이므로 역사적 산물인 것이다. 그런데 문화는 사람이 타고 나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전승되는 것이며, 그 전승된 것은 사라지거나 달라지지 않게 지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는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성을 가진 문화 중에서 옛날의 문화, 즉 전통시대 내지 전근대시대의 문화를 ‘전통문화’라고 한다. 그것은 옛날 사람들이 살아간 방식이고, 또 그것의 결과, 누적, 흔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남아 있기도 하고, 사라져버렸기도 하다. 그 중에는 오늘날 의미가 없어진 것도 있고(예: 산신제), 의미가 아직 남아있는 것도 있다(예: 마을숲). 이처럼 현대에 와서도 그 의미가 아직 남아있는 문화를 ‘문화적 전통’이라고 한다. 그것은 현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는 유형의 것도 있지만 무형의 것도 많고, 오히려 현대와 미래에 쓸모가 있고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보면, 후자의 것이 더 소중하기도 하다.

2) 조경의 문화적 전통

조경은 만들기가 아니라, 가꾸기이다. 그런 점에서 오해를 일으키는 현대적 이름이 마땅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예전에는 造營, 營造라고 하였는데, 이는 조경뿐 아니라 건축, 토목, 환경예술을 망라하는 통합적이면서도 전문적 작업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한국 조경은 取景에 못지않게 借景, 遊景과 意景의 문화가 대단하였다. 오늘날 만들기 위주의 취경에 치우친 현대 조경의 한계를 극복하자면, 반드시 이 옛 조경이 간직하고 있는 문화적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현대과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매우 합리적인 조경 원칙이나 방법을 살리자는 것이다. 숲, 물(개울, 하천, 호수 등)의 활용과 같은 과학적 조경뿐 아니라, 친환경적 감수성에 바탕을 둔 借景, 원생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친근하게 즐기는 遊景, 사이버 세계의 경지에서 자연을 즐기는 意景이 그것들이다.

• “보기에 좋은 먹은 먹기에도 좋듯” 한국인이 좋아하는 경관은 그저 보기에 좋은 경관이 아

나라 살기 좋은 환경이다. 그것은 그저 살기 좋은 환경일 뿐 아니라 ‘살아 있는’ 환경으로 여긴다. 그래서 그 경관도 그저 보기 좋은 경관일 뿐 아니라 ‘뜻있는’ 경관으로 여긴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옛 조경의 바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말 업슨[없는] 靑山이요 態 업슨 流水 | 로다
 감[歆] 업슨 淸風이요 임자[임자] 업슨 明月이로다
 이 둥[중]에 일 업슨 너[내] 몸이 分別업시[없이] 늘그리라
 성혼

〈참고 문헌〉

- 김봉호 편, 『관소리 창본집』, 서울: 백문사, 1993.
- 안장리, 『10가지 주제로 풀어본 우리 경관 우리 문학』, 서울: 평민사, 2000.
- 이륙 외,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최석기 외 옮김, 서울: 돌베개, 2000.
- 임희섭, “사회변동과 문화변동”,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정음사, 1986.
- 민경현, 『한국의 정원문화 1.2』, 서울: 예경산업사, 1991.
- 오휘영, “우리나라 근대조경 태동기의 숨은 이야기(1)”, 『환경과 조경』 141호, pp.48-51.
- 정동오, 『한국의 정원』, 서울: 민음사, 1988.
- 정재훈, 『아름다운 정원』, 서울: 환경과 조경, 1988.
- 허균, 『한국의 정원-선비가 거닐던 세계』, 서울: 다른 세상, 2002.
- 飛田範夫, 『日本庭園と風景』, 東京: 學藝出版社, 1999.
- 喻學才, 『中國旅游文化傳統』, 南京: 東南大學出版社, 1995.
- 황기원 · 유병림 · 박종화, 『조선조 정원의 원형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1988.
- 황기원 외, 『담양 소쇄원 보존정비계획 및 설계』, 문화재관리국, 1983.
- 황기원 외, 『한국의 전통 조경』, 서울: 환경과 조경, 1992.
- 황기원, “토지에서 경관으로”, 김형국 편 『땅과 한국인의 삶』, 서울: 나남출판, 1999.
- 황기원, “『園冶·興造論』 연구(2): 因借論을 중심으로”, 『환경논총』 32권, 1994 참조.
- Keewon HWANG, “Three Modes of Landscaping: Old Wisdoms into New Ideas beyond the Edge of Landscapes”, 『환경논총』 41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3.